2023
인문다큐
영화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인문다큐 영화제

2023.10.27
필름포럼

이 수

新장르의 탄생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인문다큐 영화제

목차

02 2023 인문 다큐 영화제를 시작하며
03 2023 인문 다큐 영상 공모전 소개
2023 인문 다큐 영화제 소개
04 상영시간표

05 The dark tour of SEOUL 남산은 말한다
건축왕, 독립운동가 기농 정세권
경전선 폐역을 가다
광장시장, 부업하는 자수노동자들 (부제: 사랑방 손님과 아저씨)
굴뚝일화(逸話) - 부산의 동네 목욕탕 이야기
귀 함이란 무엇인가
낭만에 대하여 (부제 : 도라지 위스키를 찾아서)
내가 있던 풍경
동두천 뉴타운
마을로 간 도서관, 마을이 된 도서관
만 개의 기억 -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들 -
매미와 들개
매수 梅叟 : 매화를 사랑하여 백발이 되었네
삼베와 어머니
서도역에서
소리꾼 윤석기 - 힙판소리 [Hip;한소리]
씨어터×다큐 <옥바라지 골목 이야기>
오래된 현대
용산의 목격자, 《용산위수감옥》
을지로들
이산(李祘)의 무사(武士)들
이상한 나라의 놀이대장
이주여성 배구단 "유니버설스타즈"
장흥 석대들, 소년의 꿈
참 괜찮은 동네-슬기로운 해법 2
책들고 트레킹-기록에 진심, 보존에 진심인 조선왕조실록길을 가다.
판타스틱 백주할망
평택 노을
혐오가 환호로 바뀌는 순간(소 부산물의 세계)
호남평야를 키워낸 물의 길, 대간선수로

2023 인문 다큐 영화제를 시작하며

21세기는 디지털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대다수의 일들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의 높은 파고 속에서 디지털을 통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보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동네의 숨은 이야기를, 나만이 아는 감동적인 인문자산을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확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지역 고유의 아날로그 '인문 자원'을 '디지털 영상'으로 보여주는'2023 인문 다큐 영상 공모전'은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지역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아주 많지만, 우리는 이를 잘 모릅니다. 어쩌면 알고 있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아 모르는 것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잊힌 이야기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열정적인 작가들에 의해 30개의 인문 다큐멘터리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곳 '2023 인문 다큐 영화제'에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카메라가 포착한 대상이 비록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나 자산은 아닐지라도, 우리 30개팀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작품이 된 순간, 그 대상은 전혀 다른 가치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상영회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칫 잊힐 수 있었던 인문자원이 영상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순간, 30개의 새로운 생명 탄생의 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판을 마련했지만, 참여자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2023 인문 다큐 영화제'를 계기로, 작지만 소중한 우리 주변의 인문자원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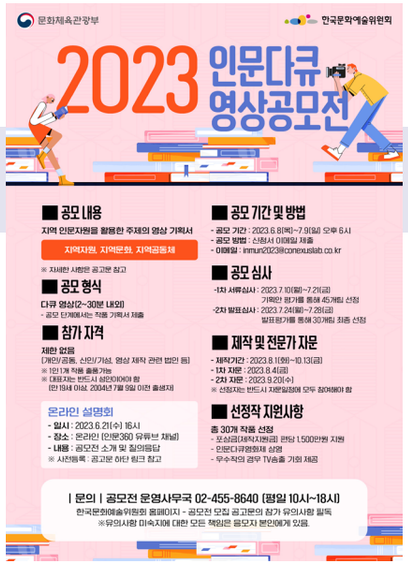
2023. 10. 27.(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 병 국

디지털 기술과 지역 인문 자원의 결합!

2023 인문 다큐 영상 공모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문 콘텐츠 제작 및
인문 가치의 대중적 확산

- 공모기간: 2023년 6월 8일(목) ~ 7월 9일(일)
- 공모내용: 지역 인문 자원을 활용한 주제의 다큐영상기획서
  (지역자원, 지역문화, 지역공동체)
- 총출품작: 430개 작품
- 심사결과: 30개 작품 선정
  (편당 제작지원금 1,500만원 지원)
- 제작기간: 2023년 8월 1일 ~ 10월 13일
  (제작기간 내 자문 멘토링 2회 진행)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新장르의 탄생

2023 인문 다큐 영화제

총 30개, 전국의 지역 인문 자원을
'인문다큐'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공개합니다.

- 일시: 2023년 10월 27일(금) 12시~21시
- 장소: 필름포럼 1,2관 (서울시 서대문구)
- 상영작: 2023 인문 다큐 영상 공모전 선정작 30편
- 관람료: 전 회차 무료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영 시간표

전체 전체관람가 12세 12세관람가

1관

1회차 12:15 ~13:45	• 개막작 The dark tour of SEOUL 남산은 말한다 (28′25″) • 건축왕, 독립운동가 기능 정세권 (27′04″) • 광장시장, 부업하는 자수노동자들 (부제: 사랑방 손님과 아저씨) (29′42″)	전체
2회차 14:00 ~15:30	• 삼베와 어머니(28′50″) • 내가 있던 풍경(24′37″) • 동두천 뉴타운(25′44″)	전체
3회차 15:45 ~17:15	• 만 개의 기억-영원히 기억하는 사람들–(29′49″) • 서도역에서 (20′16″) • 이상한 나라의 놀이대장 (30′00″)	전체
4회차 17:30 ~19:00	• 평택 노을 (29′59″) • 귀 함이란 무엇인가 (23′58″) • 장흥 석대들, 소년의 꿈 (26′04″)	전체
5회차 19:15 ~20:45	• 씨어터×다큐<옥바라지 골목 이야기>(29′53″) • 혐오가 환호로 바뀌는 순간(소 부산물의 세계)(27′51″) • 판타스틱 백주할망(25′58″)	전체

2관

1회차 12:00 ~13:30	• 개막작 매수 梅叟 : 매화를 사랑하여 백발이 되었네 (29′21″) • 굴뚝일화(逸話) - 부산의 동네 목욕탕 이야기 (20′11′) • 낭만에 대하여 (부제 : 도라지 위스키를 찾아서) (22′15″)	전체
2회차 13:45 ~15:15	• 매미와 들개(24′02″) • 소리꾼 윤석기-히판소리[Hip;한소리](30′00″) • 이산(李祘)의 무사(武士)들(24′29″)	12세
3회차 15:30 ~17:00	• 마을로 간 도서관,마을이 된 도서관(30′00″) • 오래된 현대(29′25″) • 용산의 목격자, 《용산위수감옥》(22′32″)	전체
4회차 17:15 ~18:45	• 이주여성 배구단 "유니버셜스타즈"(26′11″) • 을지로들(29′53″) • 참 괜찮은 동네–슬기로운 해법 2 (30′00″)	전체
5회차 19:00 ~20:30	• 책들고 트레킹-기록에 진심,보존에 진심인 조선왕조실록길을 가다.(27′44′) • 호남평야를 키워낸 물의 길,대간선수로(30′00″) • 경전선 폐역을 가다(29′53″)	전체

상영작 소개

2023 인문 다큐 영상 공모전

선정작 (30편)

※ 작품명 가나다 순

The dark tour of SEOUL 남산은 말한다
건축왕, 독립운동가 기능 정세권
경전선 폐역을 가다
광장시장, 부업하는 자수노동자들 (부제: 사랑방 손님과 아저씨)
굴뚝일화(逸話) - 부산의 동네 목욕탕 이야기
귀 함이란 무엇인가
낭만에 대하여 (부제 : 도라지 위스키를 찾아서)
내가 있던 풍경
동두천 뉴타운
마을로 간 도서관, 마을이 된 도서관
만 개의 기억 -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들 -
매미와 들개
매수 梅叟 : 매화를 사랑하여 백발이 되었네
삼베와 어머니
서도역에서
소리꾼 윤석기 - 히판소리 [Hip;한소리]
씨어터×다큐 〈옥바라지 골목 이야기〉
오래된 현대
용산의 목격자, 《용산위수감옥》
을지로들
이산(李祘)의 무사(武士)들
이상한 나라의 놀이대장
이주여성 배구단 "유니버셜스타즈"
장흥 석대들, 소년의 꿈
참 괜찮은 동네 - 슬기로운 해법 2
책들고 트레킹 - 기록에 진심, 보존에 진심인 조선왕조실록길을 가다.
판타스틱 백주할망
평택 노을
혐오가 환호로 바뀌는 순간(소 부산물의 세계)
호남평야를 키워낸 물의 길, 대간선수로

新장르의 탄생

1

The dark tour of SEOUL 남산은 말한다

"일제침략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동시에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기억투쟁이라고 부릅니다" #남산 다크투어 #국치의 길 #조선신궁 터 #통감관저 터 #남산의 역사

제작: 신민정 **프로듀서:** 신민정 **연출:** 황창숙
촬영: ZEUS 김진수, 장성택, 김재우
글: 신민정 **음악:** 고영수 **출연:** 김용만



기획의도

남산 기슭 예장동 4-1번지,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건 400년 수령의 은행나무다. 이곳은 공포의 6국이라고 불리던 과거 중앙정보부 6국이 자리하고 있던 곳으로 군부독재시대의 서슬퍼런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다. 그러나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10년 경술국치의 조인이 있었던 장소다. 이완용과 데라우치의 한일합병이 통감관저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실상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남산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K-콘텐츠의 영향으로 남산은 서울의 시그니처가 되었다. 그러나 남산의 영광 뒤에는 우리가 지워버린 역사가 있다. <남산예장공원-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한국통감관저 터-조선총독부 터-노기신사 터-경성신사 터-한양공원비-조선신궁 터>로 이어지는 '국치길'. 아픈 역사가 지층처럼 차곡차곡 쌓인 그 길.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남산의 애환, 지금 남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줄거리

남산 기슭 은행나무와 마주 섭니다. 이 나무는 이곳에 뿌리박은 채 400년을 살았습니다. 나무는 신령한 땅에서 국권이 침탈된 고통의 시대를 통과합니다. 서슬퍼런 독재시대를 지나 이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백범 김구의 증손, 김용만(37세)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남산예장공원 이곳은 과거 고문이 있었던 서슬퍼런 중앙정보부 6국이 있던 자리입니다. 군사독재시대의 상징, 바로 근처에서는 뜻밖의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술국치, 이완용과 3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합병조약을 체결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탄조약이 체결된 통한의 장소이건만 2010년 민간단체가 '통감관저 터'라는 푯돌을 세우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던, 아니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십분만 걸어가면 현재는 공사 가림막으로 가려진 땅이 있습니다. 과거 총독부가 광화문으로 이전하기 전 총독부, 병탄조약 전에는 통감부라고 불린 바로 그곳입니다. 이후에 경성방송에서 KBS,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인근에 바로 노기신사 터와, 경성신사 터가 있습니다. 이 길은 바로 '국치의 길'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려는 다크 투어 길입니다.

남산에 총독부가 자리 잡자 회현동, 충무로는 일본인 거주 지역으로, 명동은 본정통으로 불리며 일본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릅니다. 100만 평이 넘는 남산의 녹지 3분의 1이 공원을 조성한다는 명분 아래 재경성일본거류민단에 무상대여되기도 했습니다. 한양공원비, 남산에 굴러다니던 이 비석은 몇 년 전에야 비로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제는 한양공원 안에 일본열도의 창조신과 살아 있는 천황을 모시는 거대한 조선신궁을 세웁니다. 이후 신사참배를 의무화했었죠. 조선신궁 터의 방공호처럼 회현동 자락의 오래된 주택에서 땅굴에 가까운 방공호들이 발견됩니다. 적의 재산, 적산가옥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자 일본인들은 새벽이나 밤에 몰래 집을 버리고 도망치거나, 미 군정에 추방당하면서 빈 집이 되었습니다. 나의 증조부 백범은 적산가옥을 독립운동을 한 해외동포들에게 제공하거나, 우리 공동체가 공유할 재산으로 보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남산에서 보면 역사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남산은 서울이 그저 발전과 팽창을 향해 달려가는 거대 도시만은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다. 추위와 더위를 모두 견딘 나무만이 나이테를 갖는 것 처럼 남산은 영광과 모욕을 모두 기억합니다. 남산이 바로 서울의 역사, 서울의 나이테입니다. 400살 은행나무 한그루가 기억하는 역사, 각석이 기억하는 역사, 독재자의 동상이 무너진 곳에 다시 세워진 독립열사의 동상. 역사란 느리고 더뎌 보이지만 분명 나아가고 있습니다.

2

건축왕, 독립운동가 기능 정세권

정세권, 그가 없었다면 북촌 한옥 마을도 세상에 없었다!
#건축왕 #독립운동가 #행정의달인 #경영의신 #행복의어른

기획: 고성문화원, 이지호, 김선영 **연출:** 김선영
촬영, 편집: 심재규, 이재경 **구성:** 구명서, 이지호 **출연:** 이지호
인터뷰: 김경민, 정희영, 정희선, 김재원, 정금주, 정의진, 김동인
진행: 고성문화원 (백문기, 정은숙, 최유철)
자료조사: 고성문화원, 구명서



기획의도

일본인들이 종로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종로 우미관의 야인 김두한이 한 말이 아닙니다. 정세권 선생의 다짐이었습니다. 한옥으로 민족의 방파제를 이뤄, 일제로부터 경성을 지켜낸 정세권. 지금의 북촌 한옥 마을을 토대를 마련한 독립운동가 정세권 선생의 거인의 삶과 그가 역사에서 사라진 이유를 탐문합니다.

백난중에 분투하는 정세권에 감사하라!
정세권 선생님의 희생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만해 한용운선생의 호통입니다. 일제 강점기 동족이 고난받는 곳곳에서 우리 민족의 삶, 얼과 문화를 지키려고 상상도 못 할 희생을 망설임 없이 헌신하시고, 그로 인한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시대의 어른, 정세권. 그런 정세권 선생님이 '집장수', '건축청부업자'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세권 바로 알기의 그 시작!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기농 정세권의 삶! 건축왕이었으며, 독립운동가였고 경영의 신이었으며, 행정의 달인이었던 그의 삶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왜 그의 삶이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지워져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줄거리

북촌에는 정세권이 있었다. 민족의 방파제, 한옥으로 경성의 북촌을 지켜낸 인물. 여기저기서 등장하는 그의 이름. 조선어학회의 토지와 건물을 기증하고, 물산장려운동의 실질적 사장이었으며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년부와 월부 등 금융 파이낸스까지 운영했던 정세권! 그의 삶을 소개합니다.

1. 건축왕 정세권
일제강점기 1920년대 경성내 신축건물의 약 30%에 해당하는 6,000여채의 한옥을 지은 건축왕 정세권

2. 독립운동가 정세권
조선물산운동의 실질적 리더였으며, 신간회를 지원하고 조선어학회에 2층 양옥집을 지어 기증한 정세권. 그로 인해 고문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 당하고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정세권.

3. 경영의 신 정세권
건축자재부터 설계와 시공, 그리고 분양에 이르는 디벨로퍼로서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던 정세권. 그리고 연부와 월부까지 금융 파이낸스 서비스를 통해 돈 없는 조선인들의 삶을 이끌고자 했던 진정한 경영인 정세권.

4. 행정의 달인 정세권
최연소 면장에서 최우수 면을 일구기까지의 그의 삶! 방풍나무를 심어 마을을 해풍으로부터 보호하며 농업을 일구고, 직접 학교를 지어 배움을 널리 나누고자 한 삶을 조명합니다.

5. 행복의 스승 정세권
그리고 그의 호 기농(基本農舍)이 담고 있었던 행복(幸福)의 비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3년 고성에서 부활하는 정세권
정세권 선생님에게 올바른 호칭을 찾아드리고, 최연소 면장을 지낸 고성 하이면 사람들과 함께 그의 정신이 담긴 한옥의 새로운 건축에 도전합니다.

3

경전선 폐역을 가다

경전선 폐역 적산가옥 스토리 300

프로듀서 구성: 조현근　연출 편집: 박재현
촬영: 차동석　**드론:** 푸른하늘커뮤니케이션즈
역사 자문: 권순강, 김석철, 강호광, 김학중, 이성완





기획의도

인간의 문명은 길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철길' 속에는 역사, 문화 등 보석 같은 재료가 남아있다. 경전선은 경인선, 경부선에 이어 3번째로 부설한 철도로서 남북방향이 아닌 동서방향의 선로다. 1905년 마산선의 개설을 시작으로 1968년 진주 유수역과 광양역이 개통되면서 경남과 전라도를 이을 수 있었다. 이후 철도의 복선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전선은 폐쇄되기 시작하였다. 더 이상 철길을 달리는 비둘기호와 통일호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철도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생활권이 확장되었다. 그리고 사람과 물자는 기차역으로 집중되었다. 시장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우체국 등등이 생겨났으며 기차역은 소통과 유행의 장이 되었다. 2023년 경전선은 소멸되어 가는 지역이 되어 버렸지만 여전히 경전선엔 사람이 살고 있다.

줄거리

경전선의 시작은 경남 밀양시 삼랑진역이다. 삼랑진은 철도가 놓이기 전부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의 중심에 있었다. 영남대로는 조선시대 부산 동래에서 서울로 가는 간선도로다. 작원잔도는 '영남대로'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슬아슬한 산비탈에 존재하고 있다. 양산에서 삼랑진으로 오는 길은 작원잔도를 통해 왔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작원관을 두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진출로도 작원잔도였고, 이를 막기 위한 것도 작원관이었다. 삼랑진역이 등장하면서 역원들의 생활을 위해 삼랑진역 앞에 관사마을이 형성되었다. 철도 관사마을은 1927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17동 34호가 건설되었다. 해방 이후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불하받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진주역 관사마을은 1951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기준으로 29동 58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60년대 북쪽에 대동공업 공장이 들어서면서 관사 6동이 사라지고, 2000년대 이후에 고층 아파트 간지 건립으로 서쪽 열에 있던 관사 8동이 추가로 헐려 나갔다. 현재는 절반 남짓한 16동 넓이의 부지가 주변에 편입되지 않고 남아있다. 진영을 얘기할 때 무라이 농장을 빼놓을 수 없다. 무라이 기치베가 낙동강 일대를 개척하여 1910년대 대규모 농장을 조성했던 지역으로 김해 진영과 창원 대산면 일대 땅을 사들여서 제방을 쌓았고, 갑문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흔적은 현재 진영과 대산면에서 볼 수 있다. 순천역 관사는 순천역에 1936년 일제강점기 당시 순천철도사무소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마을이다. 현재 이곳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선 4동의 관사와 일부 복지시설을 제외하고는 등급별 관사와 승무원 숙소 등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뿐 아니라 운동장, 병원, 수영장 등의 복지시설이 함께 조성되어 당시엔 신도시로 평가받았던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탓에 아직도 마을 주변에는 관사로 사용된 일본식 가옥이 많이 남아있다. 삼랑진부터 진주, 순천 까지 관사마을을 보고 왔다. 외부와 구조 등을 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 사는 게 보였다. 어머님이 사셨고 아들이 사는 집. 어머님이 사셨던 집이고 그래서 고치지 않고 살고 싶다고 한다.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들은 말, 제일 기분 좋은 말은 '집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이다.

4

광장시장, 부업하는 자수노동자들 (부제: 사랑방 손님과 아저씨)

손님은 광장시장에 남은 마지막 나염사 아저씨의 기술을 서둘러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광장시장, #주단부, #자수기술자, #나염사, #한복제작

연출: 김민혜　**촬영:** 김민혜, 이규태, 박철훈
편집: 박철훈　**출연:** 권기현, 김민혜, 안월성, 이혜숙, 김향숙, 전영주, 성정자, 김경옥





기획의도

광장시장 건물 곳곳에 숨어있는 바느질 방에는 수십년간 한복을 만들어온 기술자들이 들어 앉아있다. 그들은 한평 남짓한 방에 들어앉아 한복 자수의 도안을 그리고 자수를 놓고 바느질을 해왔다. 쾌자, 배자, 마고자 등의 멋들어진 한복과 조바위, 아얌 등의 장신구, 화려한 금박장식과 색색의 고운 명주비단이 가득한 곳. 일주일이면 저렴한 값에 곤룡포 한 벌을 뚝딱 만들어내는 전국구의 한복시장, 광장시장 주단부. 그러나 그러한 명성과는 달리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딘가 위축되어 보인다.

줄어든 일감에 오랫동안 지켜온 자리를 내어놓고 떠나는 사람들. 자동화, 기계화 된 시스템 사이에서 모진 가격 경쟁의 풍파를 겪어내는 모든 기술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 현대사의 한 축을 차지하던, 80년대의 봉제노동자들을 기록하고 기념하고자 한다.

줄거리

1970-80년대 광장시장 주단부가 호황이던 시절이 있었다. 한복 저고리를 만드는 사람, 비단을 누비는 사람, 자수를 놓는 사람, 자수 도안을 파는 사람, 족두리와 신발을 만드는 사람, 금박을 찍어내는 사람,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술을 활용해 돈을 벌었다. 손님은 사람들이 털어놓는 옛날이야기들에 매혹되어, 시장을 자주 방문해 비단을 사가곤 했다. 상인들은 한복의 이모저모에 관심을 갖는 손님에게 한복자수의 도안을 제작하는 나염집을 알려주었다.

나염집을 찾아간 손님은 60대 초반의 아저씨를 만난다. 아저씨는 한복자수의 도안을 만들고 찍어내는 공정을 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광장시장에 남은 마지막 나염사'라고 소개했다. 선배 나염사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손님은 방대한 양의 갈색의 모조지에 새겨진 호랑이, 용, 사슴 등의 문양을 보며 그 솜씨와 세월에 감탄하였다. 손님은 아저씨의 직업이 참으로 멋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복제작산업의 호황기가 지나며, 소득이 줄어든 기술자들은 부업을 하고 있었다. 오후 세시였던 아저씨의 퇴근시간은 점점 단축되었다. 손님은 일을 마치고 부지런히 시장에 돌아가도 아저씨를 만나기 어려웠다. 초조해진 손님은 유일한 나염사 아저씨가 사라지기 전에 아저씨의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5

굴뚝일화(逸話) - 부산의 동네 목욕탕 이야기

부산의 동네 목욕탕 이야기

연출: 목지수 **프로듀서:** 정지현 **시나리오:** 안지현, 임나현
촬영,편집: 문성웅 **모션그래픽:** 정지현 **일러스트:** 강마레
음악: 최정현 **운영:** 심문경, 정지원
출연: 김 승, 이승헌, 이강훈, 이쌍판, 이영훈, 강다운, 이병원, 김순이, 안지현, 김복자, 유영래, 박차순, 이용교, 이정석





기획의도

부산의 하늘을 둘러보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던 목욕탕 굴뚝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산업과 주거환경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동네 목욕탕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약 500여 개의 동네 목욕탕이 남아있습니다. 동네 목욕탕. 부산에겐, 부산 사람들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굴뚝일화 - 부산의 동네 목욕탕 이야기>는 사라져 가는 부산의 동네 목욕탕을 단지 하드웨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네 목욕탕이 부산의 동네 곳곳에 자리를 지키며 만들어 낸 '따뜻한' 문화와 커뮤니티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부산의 동네 목욕탕은 하루의 일상을 매끄럽게 씻어내고, 이웃 간의 정겨운 소통의 장으로 역할 해온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할 자랑스런 문화자산이었고, 지금은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주민 누구나 나이, 직업,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벌거벗고 '익명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자 주민 누구나 동네의 사랑방처럼 대화 나누고 서로의 등을 밀어주던 동네목욕탕. 사라져 가는 이 공간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줄거리

이제 그 기능을 다하고 홀로 우뚝 서있는 목욕탕 굴뚝이 부산의 동네 목욕탕의 상징으로 남아서 목욕탕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다른 지역보다 목욕문화가 빠르게 발전한 부산의 목욕탕 문화는 일제 강점기 이전 일본인들이 동래온천을 관광단지로 개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입탕 문화가 없었던 우리 나라에 일본인들의 영향으로 목욕탕이라는 새로운 공간 문화가 생겨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부산은 대한민국 수출기지인 부산항을 중심으로 방직, 신발,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공중 목욕탕 붐을 불러일으켰다. 1967년 세계최초의 때수건 개발, 1990년 대 등밀이 기계 등장을 비롯해 부산은 독특한 목욕문화를 만들어 냈다. <굴뚝일화 - 부산의 동네 목욕탕 이야기>에서는 한 때 줄을 서야 입장이 가능했던 부산의 동네 목욕탕의 전성기를 기억하는 목욕탕 주인과 관련 산업 종사자, 이를 연구하는 대학 교수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동네 목욕탕은 이발소, 미용실과 함께 이웃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었다. 특히, 목욕탕은 신분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벌거벗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익명의 공간이다. 90년대를 정점으로 이러한 소통 공간인 동네 목욕탕은 주택과 아파트 중심의 주거 변화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최근 불어닥친 코로나의 여파로 목욕탕 운영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많은 목욕탕이 폐업을 이어가고, 이제 약 500여 개가 남은 상황. 하지만 동네 목욕탕을 살려보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가업을 물려받은 2세들은 목욕탕 운영에 마케팅 기법이나 서비스 경영을 도입하여 손님들에게 만족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물관리, 청결 등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동네 목욕탕을 이용해 보지 못한 MZ세대들에게 부산의 동네 목욕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팝업 목욕탕 등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젊은이들도 있다. 목욕탕은 줄어들지만 목욕문화는 사람들을 떠나지 않는다.

6

귀 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연출: 이정준 **프로듀서:** 설지희 **촬영:** 이정준
편집: 이정준 **음악:** 김백찬
출연: 국가무형문화재 선자장 김동식, 김대성
전북무형문화재 우산장 윤규상, 윤성호
소리꾼: 양혜원, 지명인





기획의도

영조시기 그려진 반차도를 보면 왕의 수레에는 우산과 부채를 든 사람이 곁에 있었다. 부채와 산은 예로부터 귀한 자의 상징이었다.

귀함이란 무엇인가. 귀하다는 것은 남과 구별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에도 소위 '명품'이 있었고 가장 귀한 자는 명품을 사용했다. 구별된 사람은 예를 아는 사람이었다. 예는 '답게'라는 개념이다.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은 또한 나를 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 나를 귀하게 만들어 주는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귀한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시대 공예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관청을 만들어 국가에서 따로 관리한 예를 들어봐도 그렇다.
제작진은 전주에서 끊어지기 직전인 명품 공예품의 맥을 찾았고 이를 기록하고 명품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산업시대를 맞이해 공장식 제조업이 등장한 이후 상품이 범람한다. 명품 또한 그렇다. 오픈런은 명품의 귀함을 보여주는 해프닝이다. 뛰어야 구할 수 있다. 명품은 많지만 귀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대체 무엇이 귀한 것인가? 제작진은 오랜 기간동안 숙련된 장인의 손에서 나온 물건이야 말로 진정한 귀한 물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물건과 사람의 귀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줄거리

영화는 전라북도 전주시의 국가무형문화재 선자장, 전북무형문화재 우산장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을 쫓는다. 어릴적 두 장인이 일을 배운 전주의 석소마을과 장재마을의 흔적을 통해 현재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잊고 사는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한다.

7

낭만에 대하여 (부제 : 도라지 위스키를 찾아서)

당신의 낭만은 안녕하신가요?
#낭만에대하여 #도라지위스키 #너무현실적이야 #너무낭만적이야 #낭만

연출: 구명서 **촬영:** 이재경 **편집:** 이재경
구성: 구명서, 김선영, 강민지
출연: 이용국, 이경진, 구명서, 오재민
자료조사: 이용국, 강민지 **제작진행:** 김규일





기획의도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너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지금, 그래서 낭만적이지 못한 것 같은 현재,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잔 마셔보자!" 최백호 선생의 노랫말처럼 짙은 섹소폰 소리와 함께 위스키하이볼 한잔을~ 그렇게 하면 우리의 낭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대중가요 가사 한 마디로 남아있는 도라지 위스키의 흔적을 근현대사에 찾아보고 그 시절의 낭만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봅니다.
빨라진 생활속도! 생산성과 결과가 중시되는 사회,
Chat GPT가 진단한 낭만의 소멸 이유,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가장 낭만적인 것 같은 사람들과의 대화와 그들과 도라지위스키 하이볼 다이닝을 함께 하며 우리 사회에 '낭만'이 필요한지, '낭만'이 없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등 어쩌면 다시 찾지 못할수도 있는 '낭만'을 노래해 봅니다.

줄거리

도라지 위스키는 존재했을까요?
도라지 위스키 외에도 온갖 '우이스키'와 '부란듸'가 존재했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일본 산토리사의 도리스 위스키가 미군 배낭에 담겨 한국에 상륙하고 PX 양주들이 시중으로 유출되어 인기를 끌게 됩니다.
부산에서 가짜 '도리스 위스키'를 만들던 사장은 무시무시한 영향력의 언론사와 맞짱을 뜨게 되고, 엉뚱한 사유로 구속이 되면서 '도리스'는 '도라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9년 검찰에 의해서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오는 동래 다방에서 멋을 부린 마담이 건넨 도라지 위스키는 의가사제대한 청년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에게 전달한 것은 낭만!

운동선수이고 싶었으나, 군대에서 몸을 다치고 화가가 되고 싶었으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에게 짙은 색소폰 소리와 함께 마신 한 잔의 도라지 위스키는 그에게 여전히 미래를 꿈꾸는 '낭만'을 주지 않았을까요?

2023년 그가 태어나 노래한 영도에서 너무도 현실적인 세상에서 비현실적인 낭만을 추구하는 3인을 소개합니다.

산에서 배를 만드는 청년들,
단 한 권의 책으로 도서관을 만드는 사나이
그리고 거대한 바지선을 정원으로 꾸며 부산항을 출항하고자 하는 연인 등
창의적이란 칭찬과 현실감이 없다는 충고를 동시에 듣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낭만을 가지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8

내가 있던 풍경

오지호, 오승윤, 오병재 화가 가문 3대가 이젤이 아닌 현실세계를 통해 들려주는
자연과 인간의 본성 이야기.

연출: 백연아 **촬영:** 변종석, 이치열
구성: 이용규, 백연아 **편집:** 백연아 **출연:** 오병재





기획의도

평론가는 그림을 이해하고 해석하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림 속에서 기억의 그림자를 찾고 채색하려 한다.
암흑의 시간 너머 빛과 그림자를 통해, 그림 속에 민족의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했던 오지호,
단청과 민화에서 영감을 얻은 오방색과 끊임없는 사생을 밑바탕으로 단순화된 형태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움을 탐색했던 오승윤,
역원근법으로 재해석한 익숙하지만 낯선 형태의 공간을 통해 시선의 공존과 확장을 모색한 오병재,
누구나 꿈꾸지만 닿을 수 없는 그랑블루의 세상처럼 빛과 색과 형태의 시간을 탐색했던 화가 가문 3대가 이젤이 아닌 현실세계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본성 이야기를 들려준다.

줄거리

회화작가 오병재는 서울의 주택가에서 바라본 건물들이 만들어낸 풍경을 역원근법으로 재해석한 <문양화된 건물> 시리즈를 그린다. 그에게 역원근법은 익숙한 형태를 낯설게 만드는 방식이자, 세상에 다양한 관점이 공존함을 암시하는 도구이다.
그의 아버지이자 오방색의 화가로 알려진 오승윤은 한국의 자연과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화려한 색채와 대담할 정도로 단순화 된 형태로 표현 된 풍경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꿈꾸었다.
한국적 인상파를 구축한 오지호는 빛과 그림자에 비친 자연의 색을 가장 한국적인 색채로 구현에 냈다.
<내가 있던 풍경>은 세 화가가 그려낸 풍경을 담고 있는 서울의 주택가와 지리산, 광주의 초가를 넘나들며 세 화가가 전달하고자 한 자연과 인간의 본성을 탐색한다.

9

동두천 뉴타운

한국인과 주한미군 그리고 아프리카이주민이 만들어가는 동두천의 미래

#동두천 #주한미군 #기지촌문화 #아프리카이주민 #다문화

연출: 최원준, 문선아 **촬영:** 서종욱, 최원준
편집: 안상범 **음악:** 영 보거스
출연: 지밀 모쿠웨, 최희신, 조인성, 등



기획의도

동두천의 지정학적 위치는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서 북동방향 약 40km가 되는 곳이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분단된 국가의 중심에 해당한다. 한국전 이후 미군은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힘의 균형을 잡기 위해 대치선인 동두천에 주둔하게 되었다. 미군이 달러와 물자를 푸는 대가로 동두천은 향락을 제공해야 했다. 1960년부터 80년말까지 동두천(과거 양주시)시가 걷어들이는 세금의 80%는 보산동 기지촌에서 나왔을 정도였다. 국가는 달러벌이에 나선 젊은 여성들을 애국자로 부르고 이들을 상대로 위생(성병)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또한 셀수없는 미군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동두천의 이미지는 추락하고 말았다. 이렇듯 국가는 동두천이 희생하는 대가로 안보와 경제를 재건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동두천 보산동 기지촌의 경제는 2002년 이라크전을 이후로 급격하게 쇠락하였다. 동두천시는 물론이며 시민들 스스로도 이제는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려 노력 중이다. 이번 영화는 동두천과 주한미군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며 현재 동두천이 마주한 현실을 통해 동두천 역사의 중요성,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 동두천이 가진 문화적 특징을 알리며 나아가 동두천의 미래를 가늠하고자 기획되었다. 영화는 크게 세가지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 주한미군과 동두천의 관계. 영화 초반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거시사적 서술로 묘사할 예정으로 특히 80년대 AFKN 영상과 라디오 음성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하여 미군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두천의 과거와 한국 언론에서 바라본 과거의 동두천 미군을 교차하며 두 나라의 시각을 보여줄 예정이다.
둘째, 주민들의 애환과 그들에게 미친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관찰하는 미시사적 관점. 현재 보산동의 클럽의 대부분은 2세들이 경영하며 클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가(양복점, 잡화점)는 60대 후반의 어르신들로 평균 30년이상 보산동을 지켜온 분들이다. 이분들이 일하는 모습과 인터뷰를 통해 이들 삶의 궤적과 보산동의 변화를 함께 보여주고자 한다.
세번째, 보산동의 아프리카 공동체와의 공존. 그동안 동두천 주민들은 미군범죄와 훈련소음 등 매년 크고 작은 갈등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 미군의 숫자가 줄어들고 한국의 국력이 올라가면서 미군들의 범죄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아프리카 공동체는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며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영화는 아프리카 공동체를 만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들을 알아보며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동두천 아프리카 공동체 부족의 왕과 왕비를 만나 그들 공동체의 역사를 서술한다. 또한 노동자로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교민파티에서 그들이 행하는 전통 문화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지켜나가고자 하는 전통의 의미를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이주민 2세들이 한국학생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통해 다문화도시로 변해가는 동두천의 미래를 가늠한다.

줄거리

한강이북에 마지막 남은 미군부대인 캠프 케이시가 위치한 동두천 보산동은 기지촌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분단 이후 80년대까지 동두천 보산동은 전국에서 미군들의 외화를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기지촌으로 알려져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동두천으로 이주를 시작했다. 2002년 이라크전이 시작되면서 동두천의 미군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과거 3만명에 가깝던 동두천의 미군은 현재 약3천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미군이 줄어든 만큼 인구도 함께 줄어들어 동두천의 인구는 현재약 9만명으로 법무부로부터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자신들의 가게를 지키는 외국인 관광특구내의 상인들은 모두가 30여년 넘게 상대한 미군들과의 의리를 생각하며 가게를 지킨다. 그들은 이제 6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젊은 미군들의 감각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미군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부터 서아프리카인들은 동두천 보산동 미군부대 캠프 케이시 근처로 이주를 시작하여 캠프 케이시 건너편에 자신들의 타운을 만들기 시작한다. 과거 장기근속을 하던 미군이 사용하던 월세집들은 이제 아프리카이주민들의 집이 되었고, 미군들을 상대하는 외국인관광특구 건너편 주택가 골목은 언제가부터 아프리카인들의 식당과 샵들이 들어선 거리가 되어있었다. 보산동의 아프리카인들은 현재 약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나이지이라 이보족은 그들의 전통 부족문화를 지켜나가며 이보족의 왕과 여왕 또한 20년째 보산동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해 지역민들과 전혀 교류가 없는 상태로 자신들만의 문화를 폐쇄적으로 유지하며 지역민들에게 많은 오해 때로는 미움을 받고 있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키지 않는 아프리카인들은 이웃들과 마찰을 빚기 일수이며 정가제가 없는 아프리카의 문화로 인해 늘 과도한 할인요구를 하는 아프리카인들은 보산동에서 미군을 상대하던 상인들과 타툼이 있기도 했다.

힌퍈 한국에서 태어난 보산동의 아프리카 이주민 2세들은 아프리카와 한국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유일한 이들이다. 그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이주민 2세 지밀은 한국인과 아프리카인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22세 청년이다. 그의 부모님은 이보족의 왕으로 나이지리아 교민사회에서 존경받고 있지만 지밀은 나이지리아 전통 왕이 될 생각이 없다. 또한 언어적, 문화적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지밀이 만나는 지역의 아프리카 친구들은 모두 다른 아프리카 성인들과는 다르게 한국문화를 좋아한다. 영화는 지밀의 모습을 통해 미군들과 지역상인들이 반세기 넘게 화합하며 발전시켜 온 기지촌이 이제 다문화타운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영화는 보산동이 가진 문화적 저력과 공동체의 힘은 화합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며 동두천이 가진 저력을 확인시켜 준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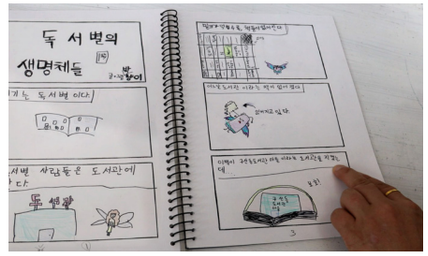
마을로 간 도서관, 마을이 된 도서관

책을 매개로 성장하는 유기체로서 도서관을 둘러싼 이야기

#마을공동체 #인문학 #문화의힘 #도시의거실 #환대가필요한곳

제작: Gajwamee **연출, 프로듀서:** 이미혜 촬영: 임지영
촬영팀: 올리버그림, 공인희 **드론촬영:** 김본희 편집: 임지영
D.I: 림지 **음악:** eesim **사운드:** 김윤경
출연: 곽재환, 이윤주, 소공, 김영미, 백재희, 박지수, 김순희, 심소율, 정연우, 김세연, 김준호, 최미나, 김지형, 김서울





기획의도

은평구립도서관, 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내를건너 서숲으로도서관은 마을 공동체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은평구 북한산, 비단산 아래 혹은 불광천을 지나 마을 속에 자리 잡고, 마을과 연결되어 있다. 도서관의 정체성인 건축학적인 미학과 더불어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도서관 주변거주지의 모습을 아카이빙하면서 발견한 세 곳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단순히 장서를 보관하고, 책을 읽는 곳이 아닌, 책을 매개로 도시와 연결된 자연생태를 통해, 도심의 자연에서 사유를 길어올리고, 책과 사람의 마을로 변모하고, 새로운 유형의 지역 문화 커뮤니티의 중심인 도서관을 기록하고, 도서관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줄거리

마을로 간 도서관, 자연과 교감하는 은평구립도서관은 야트막한 동산으로 이루어진 불광 근린공원에 있다. 시인으로 불리워지는 곽재환 건축가. 도서관 설계의 모티브가 되었던 석양은 천 권, 만 권의 책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산책을 통해서 지혜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도서관 근처에 사는 도시생태 연구자 이윤주는 코로나 팬데믹 때 불광근린공원 아미산에서 새들을 탐조하며 도감들을 대출하려고 방문한다. 도대체 이곳에는 어떤 새들이 살고 있을까?
마을이 된 도서관, 구산동도서관마을. 사적인 공간인 주택을 열고 사람들이 오가는 골몰길을 담아 공간을 만드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 공동체의 커뮤니티 사랑방. 작년 도서관에서 진행된 마을학교 강의가 끝나고 아쉬운 도서관 이용자들은 사서님의 권유로 독서활동가로서 그림책읽기 시니어모임 공감을 만든다. 매주 토요일 아이들은 웹툰교실에서 자신만의 웹툰을 그리고 있다. 마을로 간 도서관, 마을이 된 도서관.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뒤쪽으로는 비단산 근린공원, 옆쪽으로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내를 건너 숲길에 카페 에르네스토에서 1인1책 프로젝트로 마을주민들은 글쓰기를 넘어서 책을 출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매달 도서관에서는 종합자료실 라운지 혹은 비단마루 공연장에서 클래식공연이 펼쳐지고 마을주민들은 공연을 만끽하고 있다.

11

만 개의 기억 -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들 -

기억을 찾고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책임프로듀서: 송영근 **기획/연출:** 전신미, 박진환
조연출: 박원구, 유상근 **글/구성:** 박제진, 윤수정
촬영: 이인엽, 변한웅, 김정희 **종합편집:** 권민철
행정지원: 홍성혜 **출연:** 김영식 작가, 정종배 작가, 이상욱 주무관, 영원한 기억봉사단(예쁜이팀, 중랑문팀, 나보다WE팀), 일반 시민



기획의도

'망우리 공동묘지'를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되살린 사람들
찾는 사람 하나 없이 잊혀진 '화가 이중섭'의 무덤을 기억한 사람이 없었다면...
무연고 28,000여 기와 함께 화장되어 합장된 '유관순 열사'의 흔적을 찾아낸 사람이 없었다면...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영면한 선구자들의 삶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역사적 위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었을까?
"잊으면 사라진다." 무덤을 찾고, 지키고, 기억하는 사람들
망우역사 문화공원은 우리가 지킨다! 묘역을 정비하고 추모하는 '영원한 기억 봉사단'
과거의 망우리 공동묘지를 그들은 어떻게 기억했고 현재의 망우역사 문화공원은 앞으로 어떻게 기억될지...
영원한 기억봉사단이 이뤄내는 숭고한 봉사의 현장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려 한다.

줄거리

28,000명이 사라졌다
1936. 4. 8. 일제는 이태원에 묻혔던 무연고 28,000여 기를 화장한다. 일렁이는 불꽃 속에 유관순 열사도 함께 화장되어 망우리 이태원 분묘에 합장된 채 잊혀진다. '잊혀진다'는 것은 곧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공동묘지에서 시민의 숲으로
1978년부터 이장을 시작한 망우리 공동묘지. 파묘를 한 자리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울창한 숲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발길이 닿지 않는 한용운, 유관순, 방정환, 이중섭 등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와 예술가 묘역은 덤불에 가려져 방치됐다.

근현대사의 족적을 찾아
조각가 권진규가 망우리에 영면한 사실을 알고 묘소를 찾아나선 작가 김영식. 하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힘들어 포기하고 바위에 걸터앉자 하나의 비석이 눈에 잡혔다. "내가 그를 찾은 건지, 그가 날 부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덤불 속에서 발견한 유관순 열사
표석도 없이 이태원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다가 망우리로 이장되면서 더욱 찾기 힘들어진 유관순 열사. 그러나 끊임없는 연구와 의문,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열사를 가장 가깝게 추모할 수 있는 상징물을 찾았다.

영원한 기억봉사단 출범
근현대사의 현장을 영원히 기억하고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2019년 4월 탄생한 '영원한 기억봉사단'. 잡풀이 우거져 있던 애국지사의 묘소는 변하기 시작했고 진입로 확보와 안내 표지판 설치로 사람들이 왕래가 잦아졌다.

하나의 불씨가 들불이 되어
끈질긴 추적과 연구로 근현대사 위인의 묘지 찾기에 나선 정종배 작가. 자발적인 탐사로 묘역의 지도를 그려낸 이상욱 주무관. 각개 각층의 열정과 노력으로 잊혀질 뻔한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기억과 미래
기억을 좇아 산을 오르며 묘소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기억봉사단. 근현대사의 위대한 유산을 이어나갈 우리의 미래를, 다양한 연령대의 기억봉사단의 활동으로부터 확인한다.

12

매미와 들개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그곳에 있던 한국인 원폭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연출: 구가연, 박세은, 최연 **촬영:** 구가연, 박세은, 최연
편집: 구가연, 박세은, 최연
출연: 한정순, 박윤규



기획의도

이 작품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 1세대 광주지역 구술채록을 진행하던 중 기획되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한국인들 대다수에게 너무 낯선 문제이다. 1세대 피해자들은 평균 연령 89 세로 매우 연로하여 곧 사라질 세대이다. 2세, 3세 등 후세대의 경우 방사능 유전으로 인한 질병과 장애가 이어지고 있다.

원폭피해자들의 역사는 지금껏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으며, 기록들이 연결되어 있지도, 이들의 이야기와 투쟁은 당사자들 바깥으로 전달되지도 않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가 밖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카메라를 들었다.

<매미와 들개>에 담길 한국인 원폭 피해자 1세 박윤규와 2세 한정순(2세 환우회회장)의 삶은 피해 경험을 소화하고 트라우마와 함께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 <매미와 들개>는 한국인 원폭 피해문제를 주제로 다루지만, 역사가 한 사람의 몸과 삶을 관통하는 방식, 한 사람의 몸이 역사와 어떻게 맞물려 지속되는지 또한 중요하게 주목한다.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풍부해지고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가져가게 되기를, 그렇게 해서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마땅한 이름을 되돌려 주는 일이 반복되기를,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애도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줄거리

20년 동안 한국인 원폭 피해자 2세 당사자로서 앞장서서 투쟁한 한정순. 원폭피해자 1세로, 질곡의 현대사를 몸으로 통과한 박윤규. 한정순은 숙련된 활동가이다. 그는 오랫동안 국회로 거리로 대사관으로 일본과 제주로,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왔다. 박윤규는 "험하게 살았어, 별 일 다했어, 아주." 라고 말하며, 최근 원폭피해자 당사자로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쌓인 이야기를 두서없이 풀어낸다. 최근 박윤규는 광주 트라우마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다.

대구와 합천을 오가며 지내는 한정순은 합천 원폭2세 평화의 집을 지키고 있다. 한정순은 평화의 집에 오는 이들에게 식사를 내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준다. 원폭피해는 박윤규와 한정순 개인의 일상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원폭 투하라는 역사적 사건은 박윤규와 한정순이라는 개인적 역사를 만들어 냈다. 들개와 매미는 한국인 원폭피해자이다.

활동가 한정순은 원폭피해 특별법과 그 담론에 1세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20년간 내어왔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러 층위로 주변화되어 있다. 수많은 원폭피해자와 그 후손들의 죽음을 지켜 봐온 한정순은 그들의 이름을 마음에 새겼다. 그들을 함께 추모하고, 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한다.

믿을 수 없고 알아 듣기 힘든, 분절된 방식으로 말을 하던 박윤규는 "트라우마가 그리스어로 상처란 뜻이래. 나는 평생 그게 트라우마인지도 모르고 살았어"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며 유별난 하나의 일화들로 이야기되던 자신의 과거를 피해 경험과 트라우마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자신의 노력이라는 서사로 엮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여전히 현금을 지갑에 두둑하게 넣어 다니고, 식당에서 밥을 남기지 못하고, 남은 밥은 개에게 주려고 포장을 부탁하고, 헌 옷 수거함과 길거리에서 버려진 옷가지와 물건들을 줍는다.

그리고 영화의 말미, 세상을 떠난 원폭피해자 2세 환우들을 애도하는 의식을 담는다. 영화는 한정순의 목소리를 통해 2세 희생자들을 호명한다.

13

매수 梅叟 : 매화를 사랑하여 백발이 되었네

기억을 찾고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연출: 박보영　촬영: 박용오, 김창규, 진재현
출연: 석철주, 이선옥, 이성혜, 이수미, 이이남, 한영규



기획의도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키는 힘, 새로운 세계를 여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한 폭의 그림이 있다. 조선을 뒤흔든 문제작 '홍백매화도'다.
19세기, 선비들이 그렸던 매화 그림과는 차원이 다른 화풍.

사대부들의 가장 큰 덕목이었던 절제미를 과감하게 벗어던지며 엄격한 틀에 갇혀있던 매화에게 자유를 선물하듯 파격 그 자체를 보여준 '홍백매화도'는 조선 후기 중국풍의 문인화를 답습하던 화단의 오랜 관습을 깨고 조선만의 화풍, 조선만의 장르를 열었다. 그림의 화가는 스스로를 매화에 빠진 늙은이 '매수(梅叟)'라 칭했던 조희룡이다. 그는 평생 매화밖에 모르는 이였다. 하지만, 평생을 바쳐 사랑한 매화로 새로운 장르, 새로운 세계를 연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지금, 조희룡과 그의 그림을 다시 깨운다.

줄거리

"용을 그리는 법으로 매화를 그린다."
세로 여섯 자(약 1.8m) 크기의 대작. 검은 먹의 힘찬 필법의 기운이 위아래로 솟구치며 등걸을 이루고 그 사이를 희고도 붉은 매화꽃이 흩어지고 모였다. 등걸과 꽃이 조화를 이루며 꿈틀거리는 모습이 마치 용트림이다.
'청빈 속에서 살아가는 깐깐한 선비정신'의 상징이었던 매화를 '솟구치는 열정과 열망'으로 바꿔놓는 그림이 등장했다. 중국의 화풍을 따르던 기존 관습과의 결별 선언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조선 문인화'라 당당히 칭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다.

"나는 매화에 대한 편벽(偏僻)이 있다."

"스스로 매화대병(梅花大屛:매화그림의 큰 병풍)
을 그려 침실에 두르고, 벼루는 매화를 읊은 시가 새겨져 있는
매화시경연(梅花詩境硯)을 쓰고, 먹은 매화서옥장연(梅花書屋藏烟)을 쓴다.

매화백영(梅花百詠)과 같이 매화시 100수를 짓고 내가 거처하는 곳을
매화백영루(梅花百詠樓)라 편액을 단 것은
매화를 사랑하는 내 뜻을 흔쾌히 마땅한 것이지 갑자기 이룬 것이 아니다."

-조희룡 <석우망년론(石友忘年錄)>

조희룡이 매화에 품은 열정은 광기에 가까웠다. 중인 신분으로 병과에 급제한 그는 58세 때 헌종의 명으로 반년 동안 금강산을 답사하며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고 궁중의 문향실(聞香室) 편액을 쓸 만큼 뛰어났다. 하지만, 그는 집단에 매몰되지 않았다. 누구를 흉내 내거나 남의 것을 가져와 쌓아두는 것이 아닌 개인의 감정과 개성으로 새로운 창작을 해야 한다는 태도를 지켜냈다.

만 마리의 갈매기가 우는 집
그의 나이 예순셋, 그에게 유배라는 형벌이 내려졌다. 실록에 기록된 그의 죄목은 '미천한 기술'로 장래의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조정의 당쟁이 거셌던 철종 2년. 당대 조정 대신들은 날로 성장해가는 여향인의 세를 두려워하여 그 싹을 제거하려 했다. 그렇게 그는 전남 신안 임자도 산비탈의 세 칸짜리 오두막. 만 마리의 갈매기 소리가 들리는 집이라는 뜻의 '만구음관'이라는 감옥과도 같은 공간에 갇혔다.
그런데, 뜻밖에 그는 그곳에서 화가로서 절정의 경지에 올랐다. 당호가 있는 그림 19점 중 8점을 섬에서 그렸을 뿐만 아니라 '조선 문인화'의 길을 개척했다. 그는 '고립'과 '결핍'의 시간을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바꿔냈다.

14

삼베와 어머니

#삼베 #손의기억 #베매기장인서순화 #안동포마을 #금소리에서75년

출연: 서순화, 임재환, 김점선　**연출:** 박채정
촬영: 장상일, NLE 곽기태
제작: 오리진케이





기획의도

"일 할 땐 제대로 혀. 눈에서 피가 나도록 혀!"
삼베마을 금소리에는 호랑이가 삽니다. 73년 째 삼베를 짜고 있는 서순화 할머니(89)입니다. 수확철이면 그녀 목소리에 삼밭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는 손가락이 휘고, 등이 굽었습니다. 거친 삼 줄기로 베매기를 하고, 삼베를 짜느라 생긴 직업병이죠. '여든아홉 살 호랑이'는 온몸으로 삼베의 역사를 써 온 셈입니다. 된장을 넣은 풀로 삼베를 매는 건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 서 할머니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삼베 일을 그만 두라 합니다. 안동포 마을 금소리에 시집온 뒤 삼베는 할머니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삼베를 짜서 생계를 이었고,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든아홉 살 호랑이'와 그녀의 몸이 기억하는 삼베 이야기!

줄거리

#1. 삼베마을 금소리의 호랑이
"일할 때는 눈에서 피가 나게 해야 해!"
새벽 4시 반, 대마밭이 쩌렁쩌렁하다. 서슬 퍼런 낫질에 사람 키보다 웃자란 삼나무들이 갈대처럼 드러눕는다. 밭고랑 사이를 동분서주하는 서순화 할머니는 삼베마을 금소리의 '호랑이'다.

#2. 삼베는 내 운명 - 우리나라에 단 한명 남은 베메기 장인
안동포(최고급 삼베) 베메기 장인인 서순화 할머니는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대마 수확이 끝나면 마당에 숯불을 피우고, 맷돌에 실을 걸고, 된장을 쑤어 발효시킨 풀로 베매기를 반복한다. 베매기는 대마 껍질을 벗겨내 만든 실을 삼베 짜기 좋은 실로 만드는 과정으로, 사시사철 고약한 장 냄새, 들끓는 파리 떼와 싸워야 하는 일이다. 맨손으로 실을 고르고 펴는 작업을 하다 보니 할머니 손가락은 엿가락처럼 휘었다.
"시집오니까 베매기를 하라고 해. 시어머니한테 부지깽이로 맞으며 배웠어. 내 서러운 걸 하늘이 알까, 땅이 알까!"

#3. 70년 만에 나타난 첫 제자 후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가늘고 고운 삼베의 고향, 금소리. 잘 자란 대마를 수확해, 대마 잎을 제거한 후 찜기에 넣어 삶고, 삼대에서 껍질을 벗겨 햇볕이 잘 드는 냇가에서 말린 다음, 심실을 만들고 베매기를 하고, 그 실을 베틀에 걸어 베를 짜는 삼베 농사는 모든 단계마다 사람 손을 거쳐야만 하는 100% 수공.
그중에서도 베매기는 섬세함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기에 선뜻 뒤를 잇겠다고 나서는 후계자가 없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해보겠다고 나선 이가 있다.
'금소리의 젊은 피' 김점선 씨다.

#4. 삼베 일을 반대하는 아들
늦깎이 제자 하나 키워 보겠다고 결심한 서 할머니, 장남인 임재환 씨는 그런 어머니를 보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 결국 재환 씨가 어머니에게 삼베 일을 그만두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손기술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진 서순화 할머니는 뜻을 굽히지 않는데...

15

서도역에서

소설 혼불로 바라본 서도역 이야기

#서도역 #혼불 #현대사 #간이역 #남원

연출: 최양현 **촬영:** 신현철 **조연출:** 채희수 **사운드:** 한세원
출연: 전남대 장일구 교수, 양규창 혼불문학관장, 최광기,
최하범, 최강헌, 최성팔, 최정희, 이정을





기획의도 서도역은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목조역사이며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바뀌었지만, 1934년 건립된 후 2004년 폐역이 될 때까지 마을사람들을 부지런히 실어 나르며 근현대 역사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곳이다.

특히 <서도역>은 호남의 <토지>라 불리는 대하소설 <혼불>의 배경지로 유명하다. 본 다큐는 <혼불>의 배경모델인 전북 남원의 삭녕 최씨 집안을 직접 취재, 인터뷰하고 서도역이 이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추억과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 나아가 이들의 기억을 통해 한국현대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서도역을 조명할 것이다.

더불어 서도역 미니어처 세트 촬영, 연극배우의 낭독공연 등의 형식을 도입하여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독특한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한다.

줄거리 소설 혼불은 최명희 작가가 쓴 대하소설로 일제강점기 전북 남원의 몰락해가는 한 양반가문을 유장하게 묘사하였다. 소설 속 주요 등장인물인 매안 이씨 가문의 사람들은 가공의 공간인 남원 매안에서 각자의 생을 피열하게 불태운다.

매안 이씨 사람들은 최명희 작가의 뿌리인 삭녕 최씨 집안을 모델로 한 것이다. 삭녕 최씨 집안은 남원의 서도리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모여 살았다.

소설 혼불이 유명해지면서 매안으로 묘사된 삭녕 최씨 집성촌 일대는 혼불마을로 재탄생되었고 현재는 문학관광지가 되었다.

소설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곳은 서도역이다. 서도역은 소설 혼불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매안 이씨 집안의 장손 강모, 강모와 결혼을 하는 효원은 서도역을 드나들며 꿋꿋하게 삶을 꾸려낸다.

소설 속 가상의 공간이자 마을사람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장소, 서도역.
우리는 이제부터 소설 혼불에서 묘사한 서도역을 통해 서도역의 다양한 모습을 들여다볼 것이다.

16

소리꾼 윤석기 - 힌판소리 [Hip;한소리]

관악구 청년 소리꾼 윤석기의 삶의 순간들

#소리꾼 #윤석기 #판소리 #현대 #전통

연출: 이어린 [이정인] **기획:** 장인지 **촬영:** 쿤스트[전혁진]
편집: 전혁진, 이어린[이정인] **음악:** 김재덕
음향: 허성은 **출연:** 윤석기, 이어린, 김재덕, 엄세영, 김소리



기획의도 관악구에 거주하며 세대간 소통의 부재, 젊은층의 지역 유대에 대한 무관심을 느껴왔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욱 사람들과의 연대가 메마르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요즘, 관악구에서 오랜시간 예술활동을 펼치고 생계를 이어가는 이웃, 소리꾼 윤석기의 삶을 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여 소통을 목표로 한다. 침체된 분위기 속 생기를 불어넣는 지역 예술 활동을 펼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관악구 곳곳에 담긴 청년 소리꾼 윤석기(무형문화재 제5호 김세종제 춘향가 이수자)의 '전통적 삶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와 도전적인 삶을 통하여, 인간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과 선진 시민의식을 향한 고찰을 담아낸다.

전통 계승자와 현대 예술가가 함께하는 공동작업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대립 속 '화합'과 타 장르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그려내고, 전통의 이야기와 멋을 전함으로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작품 개발을 목표로 모두가 지역 시민연대와 공감대를 만들어갈 것을 기대한다.

줄거리 예술작품의 탄생과정과 인터뷰의 병행적 매치의 구성으로, 소리와 춤이 어우러진 다큐멘터리.

판소리 현대화의 선봉장으로 나선 관악구의 소리꾼 윤석기.
전통 예술가로서의 고뇌와 열정의 여정과 그곳에 담긴 소리꾼의 서정을 섬세하게 담아낸다.
곽씨부인을 잃은 심봉사의 처절한 애환을 담은 '심청가'의 한 대목을 현대무용가와 현대음악가와의 협업을 통해 재해석하여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킨다. 작품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리얼하게 담고, 오랜 시간 운영하고 있는 냉동삼겹살집 사장님으로서의 모습을 함께 담아 전통 예술가이면서 가정의 일원, 그리고 지역 시민으로서 세상과 소통하는 윤석기의 삶을 밀접하게 담아낸다. 전통 계승자로서 겪어온 내, 외면적 갈등과 고민들이 고스란히 비춰진다.

1장
소리꾼 윤석기, 그리고 삶의 공간들.

2장
엠비언트 비트에 판소리를 얹는다? 이것은 전통을 훼손하는 것인가.
전통 계승자와 현대무용가, 현대음악가와의 협업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융합을 시도하지만 자신의 영역에서 좀처럼 꺾이지 않는 황소고집과 예민함을 드러내는 예술가들. 깊어지는 전통과 현대 양극의 대립.

3장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가게.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고깃집에서는 옛 된장을 고집하는 아버지와 요즘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춘 쌈장을 주장하는 아들. " 요즘 애들은 단, 짠 이라고 ! "
대립되는 세대간 차이.

4장
마침내 심봉사의 한 맺힌 '심청가' 에 새로운 에너지를 입혀 재탄생한다.

17

씨어터×다큐 옥바라지 골목 이야기

옥바라지 골목, 역사 속에 잠들어 있는 여인들의 이야기

연출: 조성우 **영상감독:** 이영천 **음악감독:** 김한별
드라마트루기: 김옥란 **사운드디자인:** 박성진
프로듀서: 김선영 **특별출연:** 김은경, 이영창, 이혜인
출연: 장세린, 강애심, 한록수, 김아라, 이헌, 이희정, 장예빈, 송수진, 리다해, 이진주, 김초록, 이기림, 김보람, 오문강, 이휴



기획의도

서대문형무소 맞은편, 지금은 '롯데캐슬'이 육중히 들어 서있는 무악동에는 옥에 갇힌 남편과 자식의 사식(私食) 차입을 위해 여인들이 모여 살던 '옥바라지 골목'이 있었다. 감옥이 처음 생긴 1910년에는 허허벌판이었던 무악동은 3.1운동 이후 옥바라지를 위해 모인 독립운동가의 가족들로 인해 번지수가 생기고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투사의 가족들이, 군부독재기에는 민주인사들의 어머니와 아내들이 이곳에 모여 남편과 자식을 옥바라지했다. 옥바라지 여인들이 따뜻하게 지어 넣어준 밥은 옥에 갇힌 이들이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던 실낱 같은 희망이었다. 때로 감옥에서 사형집행이 이뤄지는 날이면 옥바라지 골목은 곡소리로 가득했다고 한다. 7년여 전, 무악동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결정되자 이 지역의 보존을 위한 투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재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여인들의 '밥 냄새' '눈물 냄새' 가득하던 무악동에는 이제 쏟아질 듯 육중한 브랜드아파트가 들어 서있다. 씨어터X다큐 <옥바라지 골목 이야기>는 무악동에서 아들이자 남편을 옥바라지하며 살아가는 1943년 순례와 애신의 이야기로부터 출발, 2016년 옥바라지골목 철거에 이르는 서사를 통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이 있게 한 것은 여인들의 숭고한 '밥 짓기' 였음을 말한다.

줄거리

2023년 9월, 서울 무악동에 낯선 소녀가 나타난다. 소녀는 무악동 대로변 곳곳에 어떤 그림들을 붙인다. 담벼락, 가로수, 벤치, 버스정류장..... 들고 있던 그림을 모두 붙인 소녀가 한 골목으로 향한다. 소녀의 발걸음은 골목 안쪽에 있는 어느 고택 마당에 다다르고, 과거의 소리들이 소녀의 귓전에 들려오기 시작한다.

1943년. 옥에 갇혀 있는 아들이자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함경도 출신 순례(시어머니)와 애신(며느리), 그리고 영희(딸)의 집에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옥바라지 여인들이 분주히 드나든다. 항상 도움 주는 순례가 고마워 닭을 잡아온 수원댁, 남편 면회를 위해 찾아왔지만 돈이 없어 노숙을 했던 목포댁..... 세브란스 간호부들의 캐롤소리 들려오는 성탄절 아침, 이 집을 특별 관리하는 조선인 형사 칠성이 들어와 형무소 죄수들을 중국 전장으로 징집해가는 '조선보국대' 소식을 전한다. 이 집 아들이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향' 뿐이라고 말하는 칠성. 순례는 내 아들은 잘못한 것이 없기에 전향할 것도 없다고, 아들이 지조를 지켜 끌려가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처연히 말한다.

1949년. 형무소 담벼락에서 울고 있는 제주처녀 순자에게 다가가는 순례. 순자는 4.3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에 갇힌 언니를 만나기 위해 홀로 서울로 올라왔다. 순례는 그런 순자를 집으로 들이고, 섬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이 순자의 입을 통해 증언된다. 모든 말을 마치고 평상마루에 쓰러져 잠드는 순자. 뒤편에서 조용히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녀가 순자의 몸에 이불을 덮어준다.

1975년. 중년이 된 애신의 집에 미옥을 비롯한 인혁당 사형수 아내들이 모였다. 대다수 대구 출신들인 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명운동 현수막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집을 내어준 애신. 사형수 아내들의 억울한 이야기들이 애신의 집에서 증언된다. 이야기를 듣던 소녀의 머리칼이 바람에 날린다. 1975년 4월 9일, 인혁당 사형수들의 사형이 형무소에서 기습적으로 집행되고,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택을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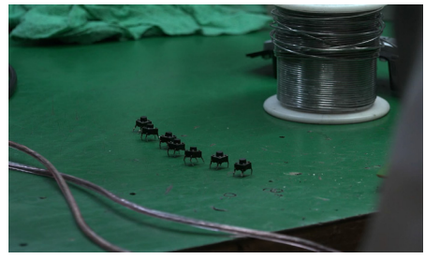
18

오래된 현대

오래된 현대전파사 이야기

연출: 안건형 **프로듀서:** 노은지 **조연출:** 이혜주





기획의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한국. 그 밑에는 한국만의 '속도감'이 자리잡고 있다. 뭐든지 항상 빠르게 변하고, 항상 최신의 기술과 유행을 좇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통의 것이라든가 오래된 것을 꺼려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뭐든 오래된 것은 숨겨야하고, 전통은 부끄러운 일이거나 동시대에서 살아남기에 부족하고, 더 나아가 고치거나 때워서 쓰는 건 가난의 증표라는 인식이다.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최신화에 대한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오래된 현대>는 오래된 어느 전파사 사장님의 모습을 통해, 현대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새것' 또는 최신에 대한 선망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려 한다.

줄거리

서울 동작구 도깨비시장에는 46년 된 전파사가 있다. 전파사의 이름은 '현대' 다. '현대 전파사.' 한때는 진열대의 칼라TV를 구경하려고 주민들이 북적이며, 동네에서 가장 최신의 느낌을 풍기던 현대전파사. 그러나 이제는 물건이 고장 나면 고쳐 쓰기보다는 버리고 새로 사는 시대가 됐고, 한 동네에 두세 가게 씩 존재하던 전파사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전파사가 사라지게 된 것은 새것만 선호하는 사람들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쳐서 쓸 수 없게끔 IC 칩을 위주로 만들어지고, 한번 뜯으면 다시 조립할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전자제품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빨리 고장나고 고칠 수가 없어야 또 새로 사는 것이고, 그래야 그걸 만드는 공장들도 돌아가기 때문이니 어쩔 수가 없다고 사장님은 말한다.
하지만 현대전파사에는 오늘도 많은 손님이 드나든다. 카세트테이프, 믹서기, 전기밥솥들을 조금 더 써보려고 고장난 물건들을 갖고 오는 것은 30년 이상 드나들던 오래된 단골들이다. 사장님은 물건 하나도 정성껏 고치고, 고친 만큼 열심히 닦는다. 그러면 그 물건은 새것이 아닌 데도, 새것처럼 보인다.
사장님은 본인이 나이가 들어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런 사장님에게 오래된 손님들은 자기들이 계속 물건을 고치려면, 오래 오래 건강하시고 계속 하셔야만 한다고 말한다.

19

용산의 목격자, 《용산위수감옥》

금단의 땅으로 여겨졌던 용산 미군기지에 숨겨진 '사라진 마을', 그리고 용산위수감옥에 대한 역사를 알아본다. #금단의땅 #근현대사 #용산 #둔지미 #용산미군기지

연출: 변준석 **조연출:** 이여운, 구혜경 **작가:** 김윤정
기획: 김민제, 정다혜 **촬영:** 최장민, 권민철, 장종권, 한상준, 이송주 **종합편집:** 김용희, 강신웅 **역사자문:** 김천수, 김민제
출연: 김천수, 황선익, 김수황





기획의도

"금단의 땅, 용산기지"
용산기지가 120여 년 만에 우리의 품으로 돌아왔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고, 용산 어린이 정원이 개방됐다. 국민적 관심이 용산으로 집중되는 이 시기, 긴 시간 동안 일반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금단의 땅 안에 숨겨진 문화자원을 조명하고자 한다.

"용산에 숨겨진 한국 근현대사를 파헤치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용산 일대에서 벌어진 아픈 민족의 기억을 모두 목도한 목격자가 바로 용산에 있다. 일제에 맞서 싸웠던 의병장 강기동, 장군의 아들 김두한, 그리고 백범 김구를 암살했던 안두희까지 많은 사람이 거쳐간 용산 위수감옥, 그리고 사라질 수 밖에 없던 마을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큐멘터리 '용산의 목격자, 《용산위수감옥》'은 용산 일대의 한국 근현대사를 영상에 담아내고자 한다.

줄거리

러일전쟁 이후 일제에 의해 군사기지화 된 이래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주둔지로 사용되면서 용산은 그동안 근현대사의 아픔과 분단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였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국민 소통 강화 목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곳 용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부흥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상징하는 새로운 용산시대가 개막되었다.

일반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용산기지"는 그동안 외국 군대가 주둔 해온 미지의 장소로 알려졌지만 사실 "용산기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과 자취가 묻어 있는 곳이었다. 용산기지의 산은 "용산"이 아닌 "둔지산"으로 현재의 이태원을 비롯한 둔지산 자락에 자리했던 옛 마을 위에 일본군이 세운 군사기지다. 또한 용산기지 내 문화유산 중 하나인 "위수감옥"은 헌병보조원 출신의 의병장 "강기동"의 마지막 흔적이 남겨진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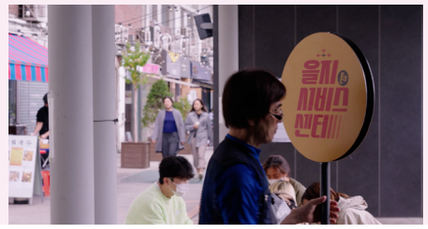
한국 근현대사 흐름과 함께 변곡점을 맞으면서 사용 주체와 용도가 변화해 온 "용산기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발굴하면서 "대통령실 용산시대"와 함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용산기지"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20

을지로들

을지로에 전시 문화예술을 꽃피운 사람들의 이야기

연출: 김영인 **촬영:** 김영인, 김동혁 **편집:** 김영인
작가: 최현승 **자문:** 고대웅
그래픽디자인: 최동준 **오디오PD:** 이강욱 **사진:** 정채령
출연: 이솔잎, 김성진, 이완배, 한대식, 문녕준, 고대웅, 신예영, 신명철





기획의도

을지로에 온 세 레이어의 사람들이 있다. 레이어1: 제조상인, 레이어2: 문화예술가, 레이어3: 문화기획자. 저마다 다른 욕망에서 시작된 교류가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이끌어냈고, 그 에너지는 을지로에 전시문화예술이라는 새로운 생명력을 피워냈다. 현재 세 개의 레이어는 전시문화예술을 성장시키는 순환의 축으로서 성장 중이다. 특히 문화예술가와 문화기획자는 새롭게 등장하거나 떠나며 개별적 세력이 견고해지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레이어인 제조상인 세력은 소멸해 가고 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다. 언젠가 제조상인이 사라졌을 때 그 현상 너머로 을지로가 잃게 되는 것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싶다.

줄거리

레이어1: 제조상인
레이어2: 문화예술가
레이어3: 문화기획자

문화기획자 이솔잎(레이어3)은 을지로 곳곳에 숨어있는 문화예술가들의 작업실에 방문한다. '을지서비스센터' 행사 협업 제안을 위해서다. 그녀는 이 행사를 통해 문화예술가들이 관계를 맺는 기회를 마련하려 한다.

'을지서비스센터'에 참여하게 된 두 명의 문화예술가(레이어2) 김성진과 문녕준. 작품을 제작하며 을지로 터줏대감인 제조상인(레이어1)과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다.

김성진은 '을지서비스센터'의 리셉션 공간의 디자인 및 제작을 위해 화신금속 이완배 사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 이어 제조상인들의 기억 속, 과거의 을지로가 소개된다.

그리고 1년 후, 이들을 다시 만났다.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21

이산(李祘)의 무사(武士)들

무예, 칼과 몸으로 복원한 인문학

촬영: 이동배, 서정민, 이규학 **편집:** 김성복
음악: 서성규, 진성은 **편집:** 창작소밈 **연출:** 송우용
출연: 수원시립공연단 무예 24기 단원들





기획의도 정조가 장용영의 군사훈련용 지침서로 집대성한 <무예도보통지>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한국전통무예의 뿌리. 짧게는 수년에서부터 길게는 30년 세월을 <무예도보통지>의 연구 복원, 보급에 힘써온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 단원들 스토리를 통해, 조선 후기 정조의 자주국방 철학과 정조가 강조한 문무겸비의 중요성 등과 만나보고 새로운 무예 인문학의 가능성을 찾아가 본다.

줄거리 매일 오전 11시 면 수원 화성행궁 앞에는 어김없이 창을 든 단원들이 등장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선 후기 단병전투무예를 선보인다. 얼핏 보면 그저 흥미진진하고 짜릿한 라이브액션 공연 같지만, 사실 이들은 오랜 수련과 부상을 극복하고, 진짜배기 전통무예를 몸에 익힌 현대판 무사들이다.

80년대와 90년대의 우리 전통 찾기 열풍 가운데 전통무예가 자리 잡아 오늘날에 이를 수 있었던 건 감옥 안 무기수 신분으로 정조의 <무예도보통지>를 빗자루로 해제하고자 애쓴 임동규 선생의 공로가 크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던 이들의 오랜 노력으로 맥이 끊어졌던 조선 전투무예는 이제 단순한 복원을 넘어 새로운 인문학적 자산으로, 시민의 볼거리, 배울 거리, 익힐 거리로 변신 중이다.

22

이상한 나라의 놀이대장

다 같이 놀자! 신나게 놀자! 건강하게 놀자!
이상한 나라에 나타난 놀이대장

프로듀서: 이동한 **연출:** 강하늘 **출연:** 강동완, 최윤미





기획의도 아기를 임신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 생각했던 부모의 마음은 아이를 키우며 서서히 바뀌어 간다. 건강은 당연한 거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나길 바라고, 경쟁에서 위에 서길 바란다.

출산률 전 세계 꼴지, 양육비 전 세계 1위, 사교육 1위, 아동행복지수 35개국 중 31위.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위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마치 우영우의 '방구뽕'같고, '피터팬' 같기도 한 강동완씨. 물론 그가 세상을 바꿀 혁신가 같은 인물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어린이는 당장 놀아야 한다'는 가치를 즐겁고 유쾌하게 시청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인공이라 생각한다.

충남 예산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놀이대장 강동완씨 부부는 주변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나무를 깎아 놀이기구를 만들고, 놀이트럭을 끌고 섬으로 산으로 무작정 어린이들을 만나며 같이 놀고 있다.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수상해 보이고 엉뚱하다. 이 특이한 부부를 통해 어린이들의 행복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본다.

줄거리 '다 같이 놀자! 신나게 놀자! 건강하게 놀자!'
주인공 강동완씨가 아이들과 외치는 주문이다.
대한민국에서 현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이 가치는 어떠할까. 사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당장 놀 수 없다.

어린 시절 흔한 썰매 한번 타 본적 없고, 맘껏 놀아보지 못했다. 어린 시절 겪었던 부모와의 이별..
강동완씨는 어린시절 놀이결핍을 겪은 '어른이'다.

내 아이들 만큼은 신나게 놀면서 자라게 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잘 나가던 건설회사 부장자리를 한 순간에 때려치웠다.

이 시대의 괴짜이자 철부지 아빠인 그는 어느덧 아이들의 놀이대장이 되어 장난감을 꽉 채운 트럭을 몰고 섬으로 산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

출산률 전 세계 꼴지, 양육비 전 세계 1위, 사교육 1위, 아동행복지수 35개국 중 31위.

현시대 놀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안쓰러워 하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말한다. 어린시절의 놀이가 나무의 나이테 같은 흔적이 되어, 행복한 기억을 머금으며 살아가길 바라고 있다.

'놀이는 져도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다. 외려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법을 익히죠'
놀이를 통해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

놀이대장 강동완씨 부부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을 쫓아가보자.

23

이주여성 배구단 "유니버셜스타즈"

이주여성배구단_유니버셜스타즈_승부에 대한 그녀들의 땀방울

제작/연출: 정영삼 **조연출:** 고기은 **촬영:** 정영삼, 권오윤
편집: 공선정 **믹싱:** 김윤경 **음악:** 고기은
출연진: 이소례, 손희연, 이꾸꼬, 할요나, 메리린, 아스랄, 칸, 손영진, 아피차, 엥흐진, 성현자, 카르멘





기획의도

작가는 스포츠라는 보편성 소재로 이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 안으로 즉, 내적으로 시민이 되는 과정, 사회 통합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작업을 하고 싶다.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민자들과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줄거리

혹시 "유니버셜스타즈"를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들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안산에서 생활하고 직장을 다니는 이주여성들과 과거 실업계 배구선수로 활동한 노장 이소례 감독의 배구 이야기이다.

사회복지사인 이소례, 법류사무소에 다니는 태국 아피차, 국민연금공단에 다니는 필리핀 손영진, 통역 일을 하는 이꾸꼬, 대학원을 다니는 몽골 아스랄, 다시 취업준비를 하는 필리핀 메리린 이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며 유니버셜스타즈를 뒤에서 서포트하는 손희연 주문관까지 일상을 사는 그녀들은 주말이면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하며 배구대회를 준비한다.

주말이면 계속되는 고된 훈련! 하지만 모두가 참석을 하지 못한다. 한 가정의 엄마 역할이 때로는 배구코트에 오기까지 험난한 여정이기에 모두가 모여서 훈련은 하지 않고 참석자들만 훈련에 임한다. 그러던 중 주장 아피차 선수가 배구를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유를 찾기 시작하였는데, 다름 아닌 친구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심적 혼란을 느꼈던 것이다. 얼마 남지 않는 배구 대회에 유니버셜스타즈는 선수 부족으로 불참을 하게 된다. 유니버셜스타즈 맴버들의 설득으로 다시 아피차는 코트로 돌아오게 되고, 비록 대회에는 못나게 되었지만 한마음체육대회에 출전을 위해서 준비를 다시 시작한다.

어느덧 다가오는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그녀들은 땀방울을 흘린 결실을 맺기 위해서 출전을 한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는 상대를 만나게 되고 유니버셜스타즈는 결승에서 낙마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녀들. 유니버셜스타즈는 다시 배구장으로 돌아와서 내년을 위한 연습을 하며, 그녀들의 목표를 위해서 오늘도 땀방울을 흘린다.

타국에서 살아가는 그녀들에게 "유니버셜스타즈"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속에서 그녀들의 일상의 피로를 달랜다. 이주민과 원주민에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결국 함께 어우러져 살아 가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주여성배구단을 통해서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고민을 던지며 다큐멘터리는 끝을 맺는다.

24

장흥 석대들, 소년의 꿈

1894년을 이어 장흥에서 피어난 소년의 꿈
#장흥석대들 #동학농민혁명 #소년뱃사공윤성도 #청년장수최동린

기획: 박광열 **연출:** 김현식 촬영: 이병국
편집: 김현식, 이병국
출연: 윤병추, 최재호, 박홍규, 위의환, 문충선, 윤영소





기획의도

1894년 전국적으로 펼쳐진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격전지인 장흥 '석대들'은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데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다른 지역의 농민군들이 거의 전멸한 상황에서 장흥 농민군은 일본군에 맞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다. 특히, 열여섯, 열일곱 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농민군과 마을 사람들을 지켜낸 소년뱃사공 윤성도와 청년장수 최동린의 헌신은 13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다.
《장흥 석대들, 소년의 꿈》을 통해 장흥 동학혁명 당시 치열하게 살았던 소년뱃사공 윤성도(16세)와 청년장수 최동린(17세)의 삶을 조명하고, 장흥의 후대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무엇을 계승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1894년 소년뱃사공 윤성도와 청년장수 최동린이 꿈꾸던 자유, 평등, 인권의 가치는 2023년 현재 후손들의 열정과 사명감 덕분에 장흥을 넘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줄거리

1894년 반외세, 반봉건을 외치며 굳건하게 들고 일어선 동학농민혁명군은 전남 장흥 석대들에서 최후, 최대의 격전을 치렀다. 석대들 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은 얼어붙은 예양강과 눈 쌓인 자울재를 넘어 덕도로 숨어들었다.
장흥에 사는 박홍규 화백은 130년 전, 혹독한 겨울을 뜨거운 진심과 협동으로 이겨낸 윤성도와 덕도 주민들의 헌신을 선명하게 재현했다. 박화백은 장흥 덕도에서 일본군에 쫓기던 동학농민군을 무사히 피신시킨 소년뱃사공 윤성도의 활약을 담은 『동학농민혁명 장흥부 덕도 탈출도』를 제작했다. 목판에 하나하나 새긴 농민군 얼굴에 처절한 슬픔과 고통,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고스란히 담았다.
소년뱃사공 윤성도의 손자 윤병추 어르신은 국민학교 시절 할아버지 윤성도에게 직접 들은 덕도 탈출기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는 어릴 때 잘 알지 못한 할아버지 윤성도의 헌신을 세월이 한참 흘러 마을 사람들과 세상 사람에게 알리고 있다.
17세 나이에 말을 타고 농민군을 진두지휘한 청년장수 최동린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다. 일본군은 소년장수 최동린을 장흥 농민군의 수괴로 지목하고, 무참하게 살해했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최동린의 집안 후손들은 동학혁명 당시 최동린의 활약을 깊이 숨겨 놓은 채 살아야 했다. 호적에서 사라진 최동린, 후세들은 최동린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 최동린의 조카였던 최재호 어르신은 집안 족보에 최동린의 양자로 올랐다. 96세 최재호 어르신은 최동린의 숭고한 시간을 지켜오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겨우 참아야 했다.
소년뱃사공 윤성도, 청년장수 최동린. 장흥 동학농민혁명 당시 온몸을 바쳐 헌신했던 두 사람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박홍규 화백은 작품으로 그들이 꿈꾸던 새로운 세상을 담아내고 있다. 마을 역사 기록가 문충선은 아직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장흥의 동학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다. 2023년 소년뱃사공 윤성도와 청년장수 최동린은 우리 곁에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25

참 괜찮은 동네 - 슬기로운 해법 2

신문이 만든 참 괜찮은 풍경, 옥천

연출: 태준식 **조연출:** 신호선 **촬영:** 태준식, 신호선
출연: 이현경, 정순영, 송영달 등





기획의도 옥천에는 대한민국 대표 지역언론인 '옥천 신문'이 있다. 옥천군민 다섯 집 중 한 집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이다. 1989년 창간 이래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고자 했던 '옥천신문'. 지방소멸의 파도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옥천'만의 다른 문화를 만들어 왔다.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많은 비영리 단체가 이를 증명한다. 많은 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대가 옥천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의 다른 말. 어떻게 옥천은 레거시 미디어인 신문을 통해 '참 괜찮은 동네'가 되었을까? 옥천신문과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내밀한 '연결의 선'이 '면'이 되는 순간을 그려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언론의 문제를 다루었던 '슬기로운 해법'(2014년 연출작. 극장 개봉작)에서 미처 다루지 못해 아쉬웠던 '옥천신문'을 10년이 지난 지금, 더욱 간절해진 '지역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펼쳐보려 한다.

줄거리 #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신문이 나오는 낯선 풍경
삶의 든든한 '빽'이자 동네의 오랜 역사를 함께한 '동지', 그리고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동네 '훙반장'. 이웃들이 말하는 옥천신문
'순리'대로 동네에서 공존하기 위한 주민들의 가을 한때. 그들에게 '소멸'은 협박의 언어일 뿐
젊음. 구석구석 옥천 사람들의 말들을 진심으로 전하는 기자

26

책들고 트레킹 - 기록에 진심, 보존에 진심인 조선왕조실록길을 가다.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사람들을 찾아가는 길

연출: 강호준 **촬영:** 원성덕
출연: 강호준, 강태윤, 변희섭, 김영주, 노성수, 이정희, 장기오





기획의도 "조선시대 책 궤짝을 짊어지고 적벽을 오른 이유는?" - 기록과 보존에 대한 의미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이다. 기록에 '진심'이었던 조선은 개국 이래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는데 열심이었다. 실록은 조선의 정치와 경제, 사회 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화와 생태계까지 당대 모든 것이 담겨있다.
(* 세계기록유산 등재 현재 총 18건, 세계 3위의 기록 문화 유산 강국)

그런 실록의 소실을 막고자 조선 왕실은 서울의 춘추관 사고, 충주 사고, 성주 사고, 전주 사고 등 전국 4곳의 사고에 실록을 각각 나눠 보관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전주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는 소실되었다. 전주사고(史庫)는 어떻게 지켜졌을까? 그 의인들을 찾아 길을 떠난다.

줄거리 나는 전주가 고향이다. 서울에서 방송일을 시작한 이후 김포에서 20년 넘게 살았다. 즉 인생의 반은 전북 전주에서 나머지 반은 경기도 김포에서 살았다. 두 도시 모두 史庫가 있었다. 전주의 경기전과 전주사고는 초등학교때 소풍의 장소였고 강화의 정족산성도 그러한 자리였다. 사고는 그저 소풍의 기억 속에 존재했다. 한 권의 책으로 인해 다시 보였다.

전주 한옥마을, 북적거리는 관광객들, 여기저기 향토색을 알 수 없는 음식점과 기념품들.... 요즘의 한옥마을은 더 이상 예전의 고즈넉했던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알고 보면 조선왕조 500년의 시작부터 지금 현재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전통 마을이다. 그중에서도 그 중심은 경기전이고 그 백미는 전주사고이다. 그 안의 세계 기록 문화 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은 일생을 바쳐 기록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기에 보존이 가능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전주근처까지 왜군의 침입을 받았다. 실록 이전이 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전 참봉 오희길과 선비 안의, 손홍록 등은 여러 논의 끝에 정읍 내장산을 실록의 보관처로 결정했다.

내장산은 산세가 거칠고 험해 왜군을 피해 실록을 숨기기에 최적이라는 판단이었다. 당시 64세의 안의와 56세의 손홍록은 이미 상당한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실록 운반에 앞장섰다. 이들은 재산을 털어 30명의 인부를 고용해 전주사고에 보관돼 있던 총 1,368권의 실록과 고려사 등 주요 서적을 전주에서 내장산까지 운반했다. 나이에 불문없이 실록이 담긴 60여 개의 궤짝을 짊어진 여정이었다. 그렇게 1592년 6월22일, 실록은 90도에 가까운 가파른 절벽 40m 높이의 내장산 용굴암과 은적암에 옮겨졌다. 그리고 안의와 손홍록 그리고 이름없는 백성들 100여명은 조선왕조실록을 370일간 지켜낸다. 안의는 조선왕조실록을 아산까지 이안하고 결국 병으로 죽는다. 숭고한 보존의 노력 덕분에 지금의 조선왕조실록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져 있다. 그 날의 흔적을 찾아 길을 떠난다.

27

판타스틱 백주할망

제주 본향당은 고단했던 제주인들의 삶을 품고 있다.
#제주본향당 #백주또 #마불림제 #마을공동체 #신화

연출: 지혜원 **촬영:** 하시영, 변종석 **편집:** 지혜원,
출연: 강순홍, 고연자, 김숙자, 김영자, 김애자, 채계추, 하순애, 홍진숙





기획의도

척박한 자연과 모진 역사 속에서 제주 여인들은 신화 속의 여신에 의지하며 힘과 위안을 얻고자 했다. 양초 한 개, 술 한 병을 올리며 여신과 독대하면서 가슴속의 응어리를 풀었고, 하얀 백지에 소원을 말하고 나뭇가지에 걸어두는 걸로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신화의 공간에서 마을 신앙이 자라났고, 그것은 다시 마을 공동체 정신의 뿌리로 성장하며 '본향당 굿'을 지금까지 지속시키고 있다. 전통신앙을 믿는 단골의 수가 줄어들고 남성중심의 유교식 포제가 전면화되면서 제주에서 본향당 굿의 위치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섬마을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함께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줄거리

제주에는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신당인 본향당이 있다. 중산간마을의 송당리와 와흘리의 본향당에서는 매년 음력 7월13일과 14일에 신에게 제를 올리는 마불림제를 거행한다. 마불림제는 장마가 끝난 뒤 신당의 마(곰팡이)를 제거하고 신의 옷을 바람에 '불려 말린다'는 의미를 지닌다. 마을의 할머니들은 정성스레 마련해 온 음식을 제단에 올리며 신에게 마을과 개인의 안녕을 지켜달라고 기도한다.
송당리 본향당의 신은 백주할망 또는 백주또라고 하는 여신으로 제주도 마을신들의 어머니로 추앙을 받는 신이다. 와흘리 본향당에는 백주할망의 열한번째 아들 신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좌정해 있다. 60년 이상 본향당을 다니며 기도했다는 할머니들은 구전으로 전해져오는 백주할망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신당의 여신에게 기댈 수 밖에 없었던 굴곡진 삶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낸다.
가뭄과 태풍 등의 자연 재해로 먹고 사는 일이 막막했을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민족문화말살로 인해 신당이 파괴됐을 때, 4.3으로 가족을 잃고 살던 터전이 화염에 휩싸였을 때, 미신타파운동으로 남의 눈을 피해 몰래 신당을 찾아야 했을 때 등 할머니들의 증언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제주의 역사로 그리고 한반도의 역사로 확장된다.

28

평택노을

평택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보듬는 노래, 동요<노을>을 부르는 평택의 미래세대에 대한 이야기

기획: 윤수연 **프로듀서:** 황혜인 **연출:** 서원태
촬영: 서원태 **편집:** 한동균 **음악:** 최현규
출연: 아미라, 라이어나, 권혜정 외





기획의도

평택의 외국인 자녀들이 초등학교에서 그들의 다양한 언어로 동요 <노을>을 배운다.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어린이들이 제2의 고향이 된 평택에서 동요 <노을>을 노래한다. 미군기지를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의 기억들, 산업화된 삭막한 공장 풍경들을 뒤로하고, 이들의 노래는 '나의 목소리로, 모국의 언어로' 여전히 평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동요 <노을>을 통해 이어지는 평택의 문화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변하는 과정과 갈등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평택의 다문화 어린이들은 40여년 전 한국의 어린이들이 그랬듯 '평택의 노을'을 함께 노래한다.

줄거리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평택 안중 지역의 안중초등학교.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러시아, 중국 등에서 부모를 따라 한국에 이주한 다양한 국적의 어린이들이 동요 <노을>을 배운다.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은 평택의 곳곳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고 고유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타지에서의 삶이 종종 그러하듯 언어를 비롯한 크고 작은 일상의 갈등과 문제들도 존재한다.
평택 안에서도 존재하는 지역적 구분,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외지인에 대한 원주민의 경계하는 시선, 빈부 격차에 따른 원주민들 사이의 안 보이는 경계, 내국인과 외국인의 '잘 섞이지 않는' 문화적 공존 상태, 농업과 산업의 발전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들의 이면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부모를 따라 한국에 정착한 다양한 국적의 어린이들은 한글을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공유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 명백히 한국의 미래세대인 이들은 어른들이 경험해 온 다양한 갈등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아가야한다. 학교에서 스스럼 없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간식을 즐기듯, 어린이들은 어른들 보다 쉽게 어울린다. 동요 <노을>을 배우는 교실에서의 아이들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적과 인종과 지역과 빈부 차의 경계들이 흐려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

29

혐오가 환호로 바뀌는 순간(소 부산물의 세계)

'원조 곱창을 먹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리를 쫓아 도착한 마장축산물 시장, 의외의 현실과 마주쳤다.
내로남불, 서로 외면하는 사람들....

연출: 김영희 **조연출:** 한은서 **섭외:** 성시명
촬영: 조대희, 이창욱 **편집:** 조대희
출연: 강영주, 강원, 김창호, 신진균, 성시명, 이상희, 전묘묘(중국인), 조봉서, 조용석, 조완녕(중국인), 조현정, 한은서



기획의도 마장동 도시재생 사업에 5년 동안 참여하면서 마장축산물 시장에 대해 연구하고 시장 환경 개선을 꿈꾸었던 주민과 상인들이 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도시재생 사업에서 꿈꾸었던 성과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참여했던 주민들과 상인들의 진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마장축산물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도입을 반대했던 그곳의 이야기를 담아 본다. 가난했던 우리나라 60~70년대에 마장축산물 시장은 서민들의 일자리였고 서민들의 단백질과 에너지를 공급했던 곳이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진 지금, 누구도 이 일에 선뜻 종사하지 않으려 한다. 축산 부산물은 작업할 때까지 눈살을 찌푸리다가 식탁에 오르는 순간에는 환호한다. 부산물과 작업 상인들에 대해 우리 내면에 잠재된 차별의식을 들여다보면서 100년 전 형평운동 역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보내는 진정한 환호는 무엇인지, 이기심을 이기는 공동체 운동을 말해본다.

줄거리 1부 환호하는 곱창 요리 소부산물
마장축산물 시장 바로 옆 곱창 골목 북적북적 줄을 선 손님들. 곱창 식당은 저마다의 레시피를 가지고 영업을 한다. 이렇게 인기 있는 요리 곱창, 막장, 대창 등 식재료는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곳에 대한 편견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밥상에 오르기 전까지 더럽고 혐오스럽다 여기는 부산물에 관해서 알아보고, 부산물을 손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혐오에서 환호로 바뀌는 순간, 부산물에 얽힌 우리 시각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 내면을 들여다 봅니다.

2부 마장축산물 시장의 부산물 이야기
이곳 주민들은 '축산물시장의 냄새가 역겹다, 징그럽다, 아이들이 놀란다, 시장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시장 환경 개선 시설물 도입을 무조건 반대, 합리적인 결정을 막기도 합니다.
우리는 백정을 천대하고 차별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 축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백정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대 놓고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시선은 사라졌을까요? 우리의 내면에 남아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3부 차별과 멸시를 뛰어넘는 순간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꿈꾼 100년 전 형평운동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인권과 평등이 중요하듯이 형평운동의 가치와 방향을 근거해서 타인의 인권, 보편적인 사람,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 노력이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이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4부 부산물 요리의 변신과 밥상공동체
혐오와 차별을 넘어 공공성을 지향하는 마을 만들기를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동체 운동은 밥상공동체부터 시작이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산물은 험한 과정과 시간을 이기고 우리 식탁에 오릅니다. 서로 처지에 대한 공감과 이해로 한발씩 내어주는 변화가 남아있는 과제를 푸는 힘으로 작동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삶에 진정한 환호를 보낼지도....

30

호남평야를 키워낸 물의 길, 대간선수로

호남평야를 키워낸 물의 길, 대간선수로의 이야기를 깨우다.
#대간선수로 #물의고찰 #인문농업유산 #호남평야 #함께걷는이들

연출, 편집: 이명환 **촬영:** 이명환, 정상현, 곽지혜
출연: 김장근, 조영호, 김왕중, 이재형, 손안나, 김태휘
보조: 김소빈
협조: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대아댐 관리사무소)
제작지원: 완주미디어센터





기획의도 전라북도를 관통하며 호남평야 인근 지역민의 문화와 농업 생활, 더 나아가 전북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대간선수로'를 주제로 하여 인문 다큐멘터리 영화영상 제작을 진행하여 지역자원과 지역문화 확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간선수로는 1923년 후지이 간타로(藤井寬太郎,등정관태랑)가 조합장으로 있던 익옥수리조합에 의해 건설된 물길로서 고산 어우보에서 시작하여 군산 옥구저수지에 이르는 63km의 수로입니다. "호남평야는 만경강이 먹여살렸다"는 지역의 인식과는 다르게 연꽃과 갈대밭만 펼쳐져있던 기존 호남 땅을 곡창지대로 변화시킨 '대간선수로'는 지역과 농업사의 발전과 일제강점기의 서글픔까지 지니고 있는 지역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삶 속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수로 건설 100주년을 기념한 다큐멘터리 영화영상 제작을 통하여 지역민에게 소외되어 온 '대간선수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확하게 알리어 전라북도의 지역사, 생활사의 연관정보 전달과 지역문화 매개로써의 활용을 기대합니다.

줄거리 <호남평야를 키워낸 물의 길, 대간선수로>

만경강과 대간선수로를 따라 3차례 걸은 이, '김장근' (前 지역농협 전북본부장)

그와 나란히 걷는 전북 지역문화 연구자, '손안나' (완주 로컬콘텐츠연구소장)
대간선수로의 시작점, 고산 어우리 마을주민, '조영호' (고산지역 구전역사 증명인)
고지도와 생태 탐구 전문가이자 대학교수, '이재형' (前 원광보건대 교수)

「표석을 따라 거닐다」 시리즈 저자, '김태휘' (전국역사지도자모임)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는
대간선수로를 따라 걷는 이들의 고찰, 그리고
경이로운 물의 여정!

2023
인문다큐
영화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